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입암서원 3면에서 계속

뉴스 다시보기

낙동강 8개 보 완전 개방을 생각해보다

겨울낙동강 8개 보 완전 개방 집단소송 추진 (2016. 11. 01. 국제신문)



낙동강 수질 오염 피해

최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3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에서는 낙동강의 물을 되살리고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의 수질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보 설치에 따른 수심의 증가가 가리앉은 부유물질과 조류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인(P)이 보 내에 가리앉아 하류로 유출되는 총량이 감소함에 따라 하류부의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하천 내에서 번성하는 조류의 형태가 부착조류에서 식물플랑크톤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층에서의 유기물 및 조류발생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입수의 수질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보 내의 수체 증가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보령, 서산, 당진 등 중부지방에 발생한 42년 만의 최악의 가뭄피해 사례는 물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기상청에서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4)」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가뭄 발생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고,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예로부터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들은 언제나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태동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몰락의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또한 물은 한 문명의 생명줄과도 같아서 하천을 둘러싼 국가·지역 간의 갈등 및 사회·정치적 논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낙동강으로부터 양질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의 완전 개방과 같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를 통한 비점오염원의 엄격한 관리,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 그리고 낙동강으로 유입 가능한 오염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박 노 석
경상대학교 교수

지면안내 » 1면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 뉴스 다시보기 / 2면 기고 & 현장인터뷰
3면 문화 & 연구동향 / 4면 소식 & 독자참여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안전한 수돗물이란



출처: 환경부 공식 블로그(자연스러운물)

환경부는 2017년 1월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에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Bromate)을 0.01mg/L 농도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의 수질기준 항목과 농도는 WHO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대체로 엄격한 수준에 속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돗물의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은 세계 일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전한 수돗물이란 물에 유해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돗물 수질기준에서 유해물질의 농도는 사람이 기준농도 이상의 특정 물질이 함유된 수돗물을 하루 2리터씩 70년 동안 음용했을 때 나타나는 발암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돗물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절대 안전과 불안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에서 해양오염 발생 후 환경복원 사업 시 복원의 정도를 판단할 때 "How clean is clean?"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즉,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논의될 때마다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제시되고는 하지만 불신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기준농도와 관계없이 특정물질의 검출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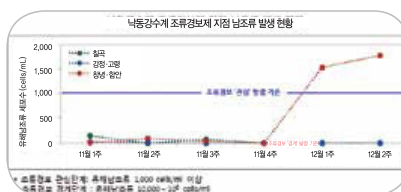
최근 부산시는 역삼투막으로 처리된 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은 수질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이러한 문제도 특정물질이 수돗물 기준농도 이하 또는 검출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돗물은 불신 받고 있다. 역시 "How clean is clean?"이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게 된다. 당연히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주민들이 신뢰하는 상태의 안전한 물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신뢰하고 마실 수 있을까? 이는 수도사업자와 주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



강 임 석
부경대학교 교수

녹조예보

낙동강 남조류 감소 추세



낙동강수계 조류경보제 대상지점인 철곡, 강정·고령 지점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유해남조류가 거의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 창녕·함안 지점에서는 사상형 남조류인

아파니조메논의 출현량이 다소 증가하여 12월 6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갈수기동안 강우량 감소로 인한 방류량 변동 등 환경여건에 따라 낮은 수온 조건에서도 증식 가능한 사상형 남조류 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혜진 연구사

※ 녹조 발생현황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소리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정진영
영남대학교 교수

월간 소식지 「낙동강소리」가 발간 9개월째가 되었다. 낙동강소리는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결성과 함께 낙동강 물관리를 위한 꾸준한 소통을 위해 학·연·산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그동안 다양한 글들이 기고되었고, 편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낙동강은 길이 521.5km, 유역면적 23,817km²로 경북, 대구, 경남, 부산 등지의 농업용수와 음용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이다. 이에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개 보(水)의 수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량 및 수질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더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낙동강소리는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매체가 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단연 3면의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다.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의 물길을 차례대로 연재하고 있는데, 창간호 황지부터 11월호 회천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다음호가 기다려질 정도다. 그리고 '뉴스 다시보기'도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뉴스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설명해주니 더 큰 신뢰감을 얻게 된다.

아쉬운 점이라면 낙동강소리를 읽다보면 낙동강을 아우르는 소리보다는 '녹조소리'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녹조가 중요하다.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가 녹조라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매달 발간되는 소식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보다 연속성이 있고 재미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내년에는 2017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글을 정리하면 독자들이 낙동강의 수질관리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관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문가들의 글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들의 쉽고 친근한 글도 실릴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연구동향' 소개 시 연구요약과 더불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준다면 관련 문의 및 상호협력에 위해 귀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낙동강소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인 낙동강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보고(寶庫)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초심을 잃지 않는 낙동강소리를



차윤재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낙동강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4월 「낙동강소리」를 창간하여 매월 소식지 제작에 힘써온 편집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창간할 때는 의욕적으로 출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폐간되는 매체가 비일비재한 세태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는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낙동강의 소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금 낙동강은 무어라 소리치고 있을까? 행복한 웃음소리일까? 고통의 아우성일까? 아니면 신음소리일까?

지금처럼 낙동강이 힘겨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녹조라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시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식수원으로써 불신을 받고있다. 대대로 낙동강과 함께 삶을 영위해온 어민들은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절규하고 있으며, 농민들도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와 토양의 변화로 인해 농사가 안된다며 한숨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젖줄이요 생명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낙동강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낙동강소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창간정신이며 존재이유라 믿는다. 지면을 통해 낙동강의 소중함이 더 널리 전파되고, 낙동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들을 활발하게 나누고 교감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낙동강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힘찬낙동강의 소리가 되길 응원한다.

물과 생활 이야기

물과 건강



빨리 찾아온 겨울.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웅크리고 있는 저 새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구의 70%가 물로 구성되어있고, 인체의 70%

또한 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나 인체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물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물은 인체 내에서 노폐물을 녹이고 배출하며, 세포가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운반하여 체온을 조절하고, 척추와 관절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그런 물이 부족하게 되면 유해물질이 쌓여 요로결석, 입 냄새와 건조, 변비와 피로감 등에 시달릴 수도 있단니 물을 잘 마시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물은 무시무시한 각종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예방적 역할에도 기여한다니, 안팎으로 소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손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체로 전파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으로, 때 이른 독감까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올바른 손 씻기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수필가 허봉조

현장인터뷰

자연과 사람, 새가 함께하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위치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전시교육팀을 찾아 을숙도 탐방 및 체험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부산시는 다양한 개발 및 이용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많이 훼손된 을숙도 일대를 대상으로 1,907 천㎡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을숙도의 자연환경 보전·관리는 물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생태 체험교육을 위해 2007년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건립했다.

가족단위와 단체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을숙도 철새공원(2.73km)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동카트를 운영하는 등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봄, 가을에는 습지 일부를 개방하여 습지 걷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을 운영하여 선박을 이용한 하구 탐방 및 생태체험활동, 실험교실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탐방선을 타고 낙동강하구 연안사주(따내려 온 토사가 쌓여 물 위로 드러난 모래언덕)인 백합등, 맹금머리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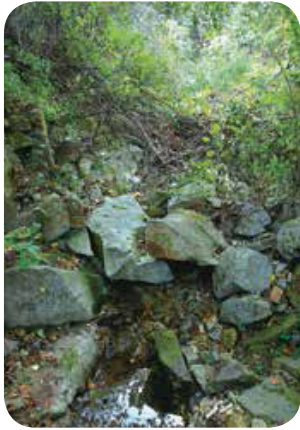
자연의 중요성과 낙동강하구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직원들의 활동에 고마움을 느끼며, 인터뷰를 마쳤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 제9편 > 금호강

고령지역 젓줄인 회천(會川)은 가야산에서 발원한 대가천과 소가천을 거쳐 합천지역에서 내려오는 안림천과 합류한 후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금호강(琴湖江)은 낙동강의 지류 중 그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강이다. 길이 116km, 유역면적 2,053.3km로, 경북 포항시 죽장면 북부에서 발원하는 자양천을 비롯한 고촌천 등 여러 하천이 영천에서 합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부근에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

금호강의 발원지도 1대간 2정맥 중 하나인 낙동정맥에서 태어나 숲한 생명들을 품고 산다. 경북 포항시 죽장면의

가사령 고개로부터 이어지는 사관령, 벼슬재, 침곡산의 동행하천인 가사천에서 태어났다. 가사천 옆으로 69번 지방도를 이용해 죽장면에서 가사령 고개를 따라가다 보면 '가사 4교'라는 작은 다리가 있다. 그 다리의 왼쪽 길을 따라 오르면 문암지 꼭지점인 갈골이라는 돌계곡 입구가 있으며, 그 길로 1,200여 미터를 올라가면 몇 개의 물웅덩이가 나타난다. 표고 491m, 지름 약 70cm로 수량은 많지 않으나 지속성이 발견된다. 이를 하여 금호강 발원지 갈발샘(갈골샘)이다. 발원지구인 포항시 죽장면 가사천 주변의 산지 일대는 비록 소량이지만 여러 곳에서 맑고 차디찬 육각수 수준의 물을 뿜어내어 영천에서

여러 하천이 합류한다.

낙동강의 중부내륙, 11만 명이 살고 있는 중견도시 영천은 동쪽으로는 경주시와 포항시가 있고, 서쪽에는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남쪽은 청도군이 있으며, 북쪽에는 청송군과 군위군이 서로 접경하여 생활,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대구권과 포항권을 연결하는 교두보 도시로서 내륙과 해양의 소통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교통망에서는 중앙선과 대구선 철도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부고속도와 국도, 지방도로 등이 원만하게 구축되어 있어 낙동강 유역 중 중·동·북부에서 사통팔달의 도시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서 중부내륙권은 대부분이 강수량 부족 지역에 속함에 따라 상류에 영천댐을 두고 금호강을 끼고 있는 지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천시가 물의 도시로 문화적인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상화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여행스케치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입암서원에서 열려있는 선비정신을



입암서원(경상북도 기념물 제70호)은 금호강 상류 지류인 자호천과 가사천이 합수하는 분기지에 위치하고 있다. 여헌장현광(1554년~1637년)과 그와 학문의 계를 같이 하는 동봉 권극립, 우현 정사상, 안암 손우남, 수암 정사진 등을 기리며 그들의 학문을 이어받기 위해 설립된 서원으로, 1868년 조선조 고종5년 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3년 복원되었다. 여헌 장현광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성리학을 깨우치는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조정으로부터 여러 차례 벼슬을 제의 받았으나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과거와 같은 정치입문의 길을 멀리하였다 한다. 이러한 학문과 품성이 영남학의 거두인 퇴계이황과 남명조식 등 문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 수많은 예비학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학문의 길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어지러운 세태에, 열린 선비정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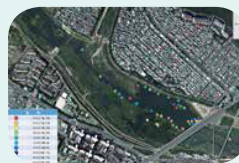


▶ 먹거리

영천댐 주변으로 6개 마을이 있는데, 우체국과 파출소, 자양면사무소 등이 있는 성곡리가 제일 크다. 이곳에서는 댐에서 직접 잡은 메기, 붕어, 쏘가리 등 신선하고 구수한 민물매운탕을 즐길 수 있다.

연구동향

● '태화강 외래어종(큰입배스)의 주요 서식처 및 이동경로 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태화강 외래어종(큰입배스)의 주요 서식처 및 이동경로 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태화강에 유입된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된 바 있다. 퇴치를 위해 낚시대회 및 홍보 등 울산시의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풍부한 어족자원과 저서 생물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큰입배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전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외래종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 및 악영향에 대한 연구방식이 구체화되어 있고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번식이나 휴식 등 생태적 특성과 선호하는 수환경, 먹이 섭식 장소 등의 어류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최근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방식(PIT tagging method, radio telemetry, acoustic tag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12월 31일까지 수행하며,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큰입배스의 이동 패턴과 주요 산란장, 서식장소 등의 연구를 통해 큰입배스의 이동 및 활동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 종 보존과 태화강 하천복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토종 생물자원 및 효율적 어족자원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Now

「제7회 반가운 겨울 철새,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다」 축제 개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코센터와 을숙도·명지갯벌 등 낙동강 하구 일원에서 「제7회 반가운 겨울 철새,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다」 축제를 개최했다.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를 찾아오는 겨울철새에 관한 정보 제공과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움 및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축제에서는 짚불공예, 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탐조, 환경영화 상영, 을숙도 탐방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는 11월 25일까지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의 먹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철새 사랑 곡류 모으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흑한기 철새 먹이 주기 행사 및 겨울 철새 먹이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2016 낙동강 물길 사진공모전」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낙동강 물길 따라 신비로운 생태경관과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주제로 「낙동강 물길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두레리움 광장에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품 전시회(10.28 ~ 30)를 개최했다. 대상(환경부장관상)을 비롯한 20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카메라 또는 드론 촬영으로 낙동강 주변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프리랜스 기자 박홍진

대구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 국제초청 세미나」 개최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일(수)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20주년기념 국제초청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구시장, 행정자치부 차관, 각 기관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세미나에서는 향후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자원봉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구 자원봉사의 영역별 정책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구자원봉사센터는 평소 환경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매년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친환경문화만들기 및 환경자원봉사단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독자참여

함께 떠나요, 낙동강 에코트레일



낙동강 에코트레일,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에서 부산 을숙도가 있는 낙동강 하구까지 1,300리 물길을 18개 구간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길이다.

영남권의 젓줄인 낙동강을 바르게 알고 보전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강을 만나 물소리를 듣고 교감을 나누어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소개한다.

- 부산대학교 최지원

Festival



▶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16.11.16~‘17.01.08, 부산시 중구 광복로일대) ▶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2016(‘16.12.04~‘17.01.08, 경남 거창군 거창읍 로타리 및 문화거리 일대) ▶ 울산 간절곶 해맞이축제 2016(‘16.12.31~‘17.1.1,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공원 일대) ▶ 함월루 해맞이(‘16.12.31~‘17.1.1, 울산시 중구 성안동 함월루) ▶ 제19회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16.12.31~‘17.1.1, 경북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대) ▶ 부산해맞이축제(‘16.12.31~‘17.01.01, 부산시 중구 용두산공원 및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News Room

「환경아이디어 특허출원 교육」 개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환경아이디어 특허출원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관련학과 대학생 대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인의 지식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경대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환경아이디어 창출법, 지식재산 보호와 특허제도,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실습 등을 구성하여 스스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및 유해 화학물질 시설개선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사업 평가보고회」를 2016년 12월 22일~23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과 행정기관 간 상호신뢰와 자율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성과와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기업 및 시·군의 새로운 시책이나 사례를 발표·전파하여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알차고 뜻 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자원재활용 페스티벌 (자원순환 작품전시회)」 개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12월 8일(목)~12월 11일(일)까지 4일간 부산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다목적홀에서, 자원순환의 의미를 공감하며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재활용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금속캔, 유리병, 발포스티렌, 종이팩, 페스트,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될 계획이며, 전문작가 작품, 홍보 판넬,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5-213-2768 | Fax 055-264-6889 | sym@gngec.or.kr